

목서 우리 목표는 16강이 아니다



은 나라가 월드컵 열기로 후끈 달구어져 있다.

월드컵은 이제 4년에 한차례씩 열리는 단순한 하나의 국제축구경기가 아니라 세계적인 이벤트 행사로 굳게 자리 잡았다. 일본과 공동주최자인 하지만 이러한 세계적 축제를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 나라에서 연다는 것은 여간 국가적 영광이 아닐 수 없다.

세계의 이목이 지금 우리 한국과 일본으로 쏠려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지금 우리가 최고의 관심과 목표를 두는 부분은 누가 뭐래도 16강인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은 하나같이 한국축구대표팀이 16강에 들기를 기대함과 동시에 강력하게 기원하고 있다. 기량이 급성장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마담이어서 이러한 희망은 환상도 그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우리는 단순한 월드컵 참가국이 아니다. 개최국임을 상기해야 한다.

물론 기급적 좋은 성적을 내고 그래서 국민적 시기와 긍지를 높이는 일을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하지만 개최국의 입장이려면 최종목표는 보다 한 차원 높여 두어야 한다.

경기를 준비해서 마무리까지 어떻게 모범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선수와 일원, 외국관객들을 위한 편의제공에는 차질이 없었는가.

우리의 목표는 16강이 되어선 안된다.

우리 문화와 상품을 얼마나 알릴 것인가, 우리의 친절과 질서정숙을 어떻게 고양시킬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이야말로 우리가 월드컵에 즈음해 진정 목표로 삼을 것들이 아닌가 싶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시적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16강 진출여부와 관계 없이 히딩크감독이 한국축구대표팀의 기량을 한 차원 높인 것을 자타가 인정하듯이, 우리 국민이 월드컵을 계기로 자신과 조국의 기량을 업그레이드 시킬 때 비로소 세계인들은 박수를 치며 한국의 새로운 면모를 인정할 것이다.

도 수(정업도량 회주 · 본지 논설위원)

2002년 월드컵 축구 전야제에서 독일작가 커터 그라스는 '천천히 축구공이 하늘로 떠올랐다'란 구절로 그의 축시를 시작했다.

대통령과 총리, 국왕과 왕족들, 유명 문화인이며 음악가 화가 대중예술 스타들이 모여들고, 수많은 문화행사가 월드컵 축구 전야제를 장식하는 것을 보면 결코 이번 잔치가 공짜 차는 사람의 상상성도 예상하지 않다. 로봇 새는 높은 수준의 한국 과학 기술을 뽐내며 미래의 눈부신 과학 발전상을 상징해 보여 준 것일 터이고, 36개의 크고 작은 목어들은 한국 불교 사찰의 사물 가운데 하나로 꼽힐 수 있을 것임을 일깨워 주고 있는 약기가 아닌가.

이번에 타악기로 등장한 목어는 그 깊은 울림으로 세계인의 정신세계에 평화에 대한 일깨움을 재촉 했을 것이

지금까지의 월드컵 개최국들이 누릴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다. 화려한 전야제 개막제 예술행사는 물론, 세계 매스컴들은 이미 한국에서 나 체험 할 수 있는 템플 스테이나 세계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개고기 요리, 역동적이면서도 한편 성급한 한국인의 기질이며 교통 사정, 깨끗해진 도시거리와 화상질 문화까지 속속들이 증세 보도하고 있다. 그동안 연

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하겠지만 이 역시 국민적 관심과 지원 없이는 세계적 규모의 축제를 감당기 어려울 것이다. 월드컵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첫째도 두 번째도 국민들의 참여 정신이 필요하다. 수많은 행사 마당을 가득 채워 열기를 북돋우고 세계인과 함께 잔치마당을 흥겹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출리건으로 대비되듯 축구에는 사람들의 야성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다. 한국을 찾는 열광적인 세계의 축구팬들이 얼마간의 난동을 부린들 대수겠는가. 이는 축제에서 결여되어서는 안 될 카니발 적 무질서의 해프닝으로 이해해야 할 일이다.

한국의 16강 진출, 더 나아가 8강 진출의 꿈이 언급어도 좋다. 하지만 월드컵 개최국으로서의 성공은 축구의 역량 보다 세계에 드러날 한국인의 문화 수준과 자질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김정자 칼럼니스트

신호로 몇 년에 걸쳐 손님이 준비를 해 온 이 땅에 이제 한 달여 동안 세계인을 위한 축제 한마당이 펼쳐지고 있다.

이 한마당은 어떤 마당인가, 각국의

들의 힘과 기쁨만을 겨루는 스포츠 한 마당만이 아닐까 깨우쳐 준다.

'세계인이 하나 되는 어깨동무', '동방으로부터...소통'이란, 전야제와 개막제에 내놓은 표제어는 인종 종교 언어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 분단한국이 호소하는 절절한 통합과 화해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전야제에 날아 오른 '평화의 새'로 북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타악기 목

다. 세계 몇 10억 인구가 동시에 지켜 볼 장면들을 전해 줄 수많은 세계 각국의 카메라 렌즈 초점은 축구공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한국 문화, 한국인에게도 맞추어져 있다. 이를 우리는 월드컵 한국의 기회라 보고 있다. 한국을,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단번에 세계에 보여 줄 절호의 기회, 월드컵 행사 주최국에 따라 올 경제 활성화의 기회라는 뜻일 것이다. 이는

마한 기량으로 한국 축구가 16강에 진입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이번 '세계인의 잔치'는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 10개 도시에서 저마다의 문화 역량을 보여 주는 그야말로 전국적인 한마당이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손님들을 맞아 접대하는 주인이며, 그들이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이 땅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 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몇 천 명

스님 재교육 쌍수들이 환영 형식에 그치지 않게 노력

조계종에서 스님을 재교육을 실시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반가웠다. 사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스님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것은 자질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초발심을 잃은 나태한 생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스님들에 대한 재교육은 불교발전은 물론 인권의 사표로서 스님이 갖추어야 할 의무를 확립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더욱이 불교의 사회참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요즘, 스님들로 하여금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한다는 점에서 여법하게 진행되도록 박수를 보내고 싶다.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불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꼭 필요하고도 유익한 교육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김정현(충남 천안시 직산면)

대불련 사무실 줄어 이전 그 많은 동문들은 어디에...

불교역사기념관 건립으로 인해 대학성불교연합회가 조계사 맞은편 반야역사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고 한다.

조계종은 대불련에 내어줄 공간이 없어 기존의 50여평에서 20여평에 불과한 공간을 임시로 마련해 줬다고 하지만, 대학생 포교 적극 지원이라는 표어가 무색해 보인다. 최근들어 대불련의 활동력이 급속히 떨어져 중단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사무실 이전문제는 과연 미래 불교 지도자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종단 관계자들에게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게다가 그 건물은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 슬픈 마음이다.

독자의 소리



조계사의 축구공터널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조계사가 일구에 축구공들로 터널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사진=배영수씨 제공

조계사의 축구공터널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조계사가 일구에 축구공들로 터널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박노자 교수 주장 공감 커 자성·참회 계기 됐으면

박노자 교수의 글 '하화중생 없는 한국 선'에서 지적된 스님들의 대중을 외면한 선 수행, 이원된 지계 의식, 기복성 등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게 된다. 특히 사회적 현실에 대해 불교적인 입장에서 선 개조자들의 역할 중대가 필요하

는 박 교수의 주장이 마음에 와 닿는다. 그러나 스님들이 참선에만 몰두하고 대중은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불교는 완전한 선불교가 아닌 불불교 성격이 강한 불교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의 근본적인 가치가 자신의 깨달음에만 있다고 본 것은 선의 내면을 들여다 보지 못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교수의 글은 상당수 불자들에게 '속 시원한' 글로 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현 한국불교의 행태가 부처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박 교수의 글을 계기로 일어난 자성과 회회의 소리가 커져 한국불교가 진실로 변화했으면 한다. 이성호(충북 청주시 용담동)

현대불교신문을 읽고 '자원봉사' 필수과목 지정 교계 능동적 참여 따라야

5월 22일자(370호) 2면 '자원봉사, 불교대 필수과목으로' 기사를 읽고 아직까지도 자원봉사가 불교대학의 필수과목이 되지 못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타종교에 비해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 사회적 실천이 뒤쳐져 있다. 특히 불교대학은 불교적 소양을 갖춘 불자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이다. 이런 불교대학에서 불교의 구체적인 사회실천인 자원봉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불교의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불교는 어느 종교보다도 사회적 실천을 중요시한다. 이제라도 한국불교계는 자원봉사의 필수과목 지정은 물론 사회적 실천을 위한 제도 마련, 사회복지기관 설립 등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 자원봉사는 단체나 종단에 소속되어야만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불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김용철 kyc4333@hanmail.net

불자의 생각

불교사이트 유료화

불자들은 불교전문 사이트의 콘텐츠 유료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130명이 동참한 붓다 뉴스 네티즌 설문에서

39% 찬성한다
30% 시기상조
52.3% 찬성한다

콘텐츠 특성상 '찬성' 52.3%

68명(52.3%)의 불자들은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유료화를 해야 된다고, 5명(3.9%)는 해악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39명(30%)은 아직 시기상조다. 18명(13.8%)는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불교전문사이트의 유료 콘텐츠를 이용할 생각이 있는지는 질문에는 83명(63.9%)이 있다. 47명(36.1%)이 없다고 답변했다. 일민태 기자

간(肝)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옹달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참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참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허균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참다슬기 기원: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약 97마리쯤 달인 뒤 약 70도를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명숙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원을 인드는데 쪼개자 다 타들어 가기까지 고약 8~9리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저음' 조선훈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 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선무도 화랑 수련회

신라 화랑정신의 고장인 경주 골굴사의 釋道 大舍門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 간 : 2002년 7월 1일부터 2개월간 (1주, 2주, 1개월)

대 상 : 초·중·고등 이상 개인 및 단체 (불교학생회, 신영단체, 각종 사회 단체 위탁연수)

수련내용 : 참선, 선요가, 선무술, 전통문화 (무용, 다도)

통참금 : 학생 (1일 - 2만원, 1개월 - 60만원) 일반 (1일 - 3만원, 1개월 - 65만원)

접수문의 :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수련비입금 계좌 : 통 721107-52-037300 예금주 김 기 준

준비물 : 개인 세면도구, 선땀, 운동화, 필기도구, 우산

1천 5백년전 신라시대에 창건된 골굴사의 부설 선무도 대학에서 주관하는 본 수련회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대 자연 속에서 불교와 선무도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며 화랑정신을 배운다. 선기공 수련으로 정서불안과 각종 성인병, 만성병을 치료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소용돌이치는 인성교육의 효과를 얻는다.

4시	기상, 예불 (불참시에는 3번째 참회 및 진 대중이 1일 불식)	13시	복서와 사색
5시	좌선	14시	오후수련 및 전통문화와 정승(학생)
6시	조경, 등산	16시	문학(도량 정승 및 정미작업)
7시	아침공양(참우공양)	18시	저녁공양
9시	오전수련	19시	예불후학방은 자율학습 및 참회복싱기
11시	108배 참회기도(자이불 향안 서원)	19시 30분	저녁수련(일반인)
12시	점심공양	21시	참회 및 취침

- 기량사, 감은사지, 문무대왕 수종증(봉길해수목장) 성지순례

* 입산 후 개인 좌선, 이경교제, 술, 담배, 간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어길 경우, 3번째 참회 및 죽비나 회초리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goiguisa.com 또는 sunmudo.com

* 수련회 참가자는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스님, 사범 등 지도진 10명, 무용강사 4명(전직교사 및 전공자), 다도강사 2명(부산여대 다도 대학원 졸업생)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 굴 시
세계 선무도 협회 大舍門 선무도 대학

현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가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단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기공할 죽음의 질병을 앞에 우리인간은 원천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도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대.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 등 전제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단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인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원력을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단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자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뺨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어모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